

# KIA '캡틴' 김선빈, 타이거즈 명가 재건 이끈다

선수들이 뽑아 책임감 더 느껴...선배 권위 내려놓고 후배와 소통할 것  
2루수 골든글러브 도전하고 싶어...더블 포지션 전략 맞춰 유격수 수비도  
"김종국 감독, 대충대충 하는 것 싫어해...팀 성적 내도록 최선을 다할 것"

KIA 타이거즈의 김선빈이 '캡틴'으로 명가재건의 선두에 선다.

KIA는 3일 선수단 투표를 통해 2022시즌 주장으로 김선빈을 선택했다. 2008년 화순고를 졸업하고 KIA 유니폼을 입은 김선빈은 15번째 시즌 '캡틴'이라는 수식어를 달고 그라운드를 누비게 된다.

선수들이 직접 선택한 주장이기에 김선빈은 더 묵직한 책임감을 느낀다.

김선빈은 "나이가 많아서 표를 받은 것 같다(웃음)"며 "마음이 무겁다. 선수들이 선택한 것이라 더 책임감이 크다"고 소감을 밝혔다.

또 "(나성범, 김민식 등) 내 도래가 많아서 우리가 잘 이끌어야 한다. (양)현종이 현한테도 부탁했다. 형이 돌아오면서 분위기도 바뀌고 투수 파트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며 "(임)기영이가 지난해 임시 주장 맡아서 고생 많이 했다. 고마운 마음이다"고 말했다.

책임감을 무겁지만 선배의 권위를 내려놓고 후배들에게 다가갈 생각이다.

김선빈은 "예전에는 주장하면 거리감 있고 선배라고 생각해서 다가오지 못하는 선수들이 많다고 느꼈다. 무섭기도 하고 나이 차도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소통을 하는 주장이 되고 싶다"고 이야기했다.

선수들과의 소통만큼 잘 아는 선배이자 사랑받던 김종국 감독과의 소통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전망이다.

김선빈은 신인 시절 '대선배' 김종국 감독과 룸메이트를 했었다. 나치완을 제외하고 현역 시절을 함께 한 유일한 야수다. 겉으로 보이는 온화한 이미지와는 다른 김종국 감독의 강한 면모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주장으로 이 부문을 잘 조율할 생각이다.

김선빈은 '김종국 감독이 어떤 선배였나?'는 질문에 "솔직히 말씀드려야 하나?"고 반문에 사람들을 웃겼다.

김선빈은 "신인 때 진짜 무서웠다. 포스, 아우라가 느껴졌다. 같이 룸메이트 하고 선수 생활하면서 수비, 야구 많은 것을 배웠다"며 "어떤 걸 싫어하는지 아니까 후배들 잘 컨트롤 해야 할 것 같다. 야구장에서 대충 대충하는 걸 싫어한다. 그걸 조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팀을 하나로 이끌어야 하는 주장이지만 성적을 내야 하는 팀의 베테랑이기도 한 김선빈. 특히 최근 KIA 주장을 맡았던 선수들이 부진했던 만큼 더 좋은 결과를 만들고 싶다.

김선빈은 "주장을 맡았던 선수들이 안 좋아서 의식은 되지만 징크스일 뿐이다. 안 다치는 게 첫 번째 목표다. 그게 가장 큰 목표다. 부상만 조심하면 될 것 같다"며 "다른 기록적인 부분에 욕심은 없지만 2루수 골든글러브에 다시 도전해보고 싶다"고 말했다.

골든글러브 시상대에 오르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역시 '타'이다.

김선빈은 "내가 홈런타자가 아니다. 장타를 치는 선수가 아니기 때문에 팀을 위해 많은 역할을 하면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다"며 "몸 상태는 좋다. 제주 도에서 김태진과 한 달 가량 훈련을 했는데 수비와 웨이트에 비중을 많이 뒀다. 햄스트링 부상이 있었기 때문에 많이 뛰었다"고 설명했다.

이번 캠프에서 김선빈은 유격수 수비도 소화하고 있다. 김종국 감독의 '더블 포지션' 전략에 맞춰 새 시즌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다.

"오랜만에 유격수 훈련해보니까 재미있었다. 어느 정도인지는 경기를 해봐야 알 것 같다. (유격수인) 찬호가 잘 버텨줄 것이다"라면서 웃음을 보인



KIA 타이거즈의 새로운 주장이 된 김선빈(오른쪽)이 3일 합평 챌린저스필드에서 윤도현, 김태진과 밝은 표정으로 수비 훈련을 하고 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 프로야구 시범경기 3월 12일 시작

김선빈은 한 포지션만 하는 것도 좋는데 여러 포지션을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이야기했다.

무엇을 열어봐야 알겠지만 새 시즌에 대한 기대감은 크다.

김선빈은 "외국인 선수가 모두 새로 왔기 때문에 올 시즌을 예상하기는 어렵다"면서도 "확실히 후배들이 작년보다 많이 늘었다. 방망이, 수비에서 많이 늘었다. 준비를 많이 해온 것 같다. 나도 부상 없이 시즌 보내면서 팀 성적을 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프로야구 시범경기가 3월 12일 시작된다. KBO가 3일 2022 KBO 시범경기 일정을 발표했다. 시범경기는 3월 12일 시작돼 29일까지 팀당 16경기씩 치른다.

KIA는 창원에서 NC와 시범경기 개막전을 치른다.

사직(SSG-롯데), 대구(한화-삼성), 수원(LG-KT), 고척(두산-키움)에서도 시범경기 첫 대결이 펼쳐진다.

KIA는 그라운드 공사로 20일까지 원정경기를 소화한다.

12·13일 NC와의 경기에 이어 삼성(14·15일), KT(17·18일), 롯데(19·20일)와의 원정경기가 예정됐다. 이어 21일 두산과 홈에서 첫 시범경기 일정을 소화한다.

24일부터 키움과 홈 2연전을 갖는 KIA는 26·27일 대전 원정을 다녀온 뒤, 28·29일 홈에서 SSG를 상대로 마지막 점검 무대를 갖는다.

한편 시범경기 모든 경기는 오후 1시에 시작된다. 연장전과 더블헤더는 진행되지 않으며, 취소 경기는 재편성되지 않는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 정해영 "체력 다지고 스피드 더 올리고 싶어"

다치지 않고 풀타임 소화 목표  
작년보다 더 나은 시즌 만들 것

'더 발전된 2022시즌'을 목표로 정해영(사진)이 세 번째 캠프를 열었다.

2021시즌 정해영은 KIA 타이거즈의 희망이었다. 팀은 무기력한 패배 속 최위위 싸움을 했지만 정해영은 묵묵히 마무리 역할을 하면서 세 이브를 쌓아갔다.

프로 첫해 팀의 필승조로 급부상했던 정해영의 두 번째 시즌은 평균자책점 2.20, 5승 4패 34세이브로 마무리됐다.

선동열, 임창용, 윤석민에 이어 타이거즈에서 4번째로 30세이브 고지를 밟은 정해영은 KBO 리그 최연소 30세이브 주인공으로도 이름을 올렸다.

눈부신 시즌을 보낸 정해영이지만 만족은 없다. 지난 시즌보다 하나라도 더 이루겠다는 각오 속에 3일 정해영은 볼펜에서 첫 피칭을 소화했다.

정해영은 "처음치고는 나쁘지 않았다. 지난해 생각해보면 공에 힘이 더 붙은 것 같다"고 본격적인 훈련에 나선 소감을 밝혔다.

캠프를 위한 사전 준비는 잘 이뤄졌다.

정해영은 "더 나은 시즌을 보내고 싶어서 작년보다 더 많이 운동했다. 웨이트를 많이 했다. 성장할 수 있는 나이로 더했던 것 같다"고 이야기



했다.

지난 시즌 마무리라는 중임을 맡으면서 체력적인 부분에 대한 중요성을 느꼈던 만큼 웨이트에 더 신경 썼다.

싸우기 위해 기본부터 다시 다진 정해영은 경기 운영 능력에서도 한 단계 도약을 노리고 있다.

정해영은 "더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해서 카운트

싸움을 더 잘해야 한다. 초구부터 스트라이크 잡으려고 한다. 또 지난해 한번 무너지면 많이 흔들렸다. 그걸 많이 잡아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스피드'도 더 강한 마무리가 되기 위한 정해영의 목표. 무엇보다도 건강하게 풀타임을 소화하는 게 정해영의 최종 목표다.

정해영은 "스피드도 더 올리고 싶다"며 "안 다치고 풀타임을 소화하는 게 제일 큰 목표다. 작년보다는 세이브 하나라도 더 하고 싶고 한 경기라도 더 나가고 싶다. 목표를 작게 조금씩 하면서 많이 이뤄나가겠다"고 말했다.

올 시즌 광저우 아시안게임이라는 욕심나는 목표도 있지만 천천히 시즌을 보내면서 목표를 향해 걸어나갈 생각이다.

정해영은 "욕심내고 싶지만 욕심이 과하면 오버페이스도 하고 결과 안 좋게 나올 수도 있다"며 "내 페이스대로 가려 노력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지난 2년과 달리 마무리라는 확실한 자리에서 확실한 목표를 가지고 세 번째 캠프를 맞이했지만 정해영은 '조심'을 이야기한다.

정해영은 "마음가짐은 똑같이 하려 한다. 똑같이 경쟁을 하기 때문에 안 지려고 한다. 안 다치고 꾸준히 했으면 좋겠다. 앞으로 3년, 4년 꾸준히 하는 선수가 되고 싶다"고 각오를 밝혔다.

/글·사진·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 "쏘니가 돌아왔다"

한달 만에 토트넘 훈련 참여...6일 FA컵 출전 가능성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 토트넘의 핵심 공격수 손흥민(30)이 부상을 털고 돌아왔다.

토트넘은 3일(한국시간) 구단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쏘니(손흥민의 애칭)가 돌아왔다(Sonny's back)"며 훈련에 참여한 손흥민의 사진을 공개했다.

전날 영국 스포츠카이스트의 라이얼 토머스 기자는 "손흥민이 훈련에 복귀했고, 브라이턴과 FA(잉글랜드축구협회)컵에 출전할 수 있을 정도로 건강을 회복했다"고 진단한 바 있다.

구단이 공개한 사진 속 손흥민은 밝은 얼굴로 해리 윙크스 등과 훈련을 소화했다.

손흥민의 복귀는 약 한 달만이다. 그는 지난달 6일 첼시와 잉글랜드 카리바오컵(리그컵) 준결승 1차전(토트넘 0-2 패)을 치른 뒤에 다리 근육 통증을 호소해 전열에서 이탈했다.

손흥민의 복귀는 토트넘에 큰 힘이 될 전망이다. 토트넘은 손흥민이 자리를 비운 사이 리그컵 4강에서 첼시와 밀러(합계 0-3 토트넘 패) 탈락했고, 지난달 24일에는 첼시와 EPL 맞대결에서 0-2로 무릎을 꿇으며 안토니오 콘테 감독 부임 후 정규리그 첫 패배를 당했다.

토트넘은 이번 시즌 EPL에서 7위(승점 36·11승



손흥민 복귀 소식을 알린 토트넘.

(토트넘 트위터 캡처)

3무 6패)를 기록 중이다.

6일 브라이턴과 FA컵 4라운드를 치르며, 10일 사우샘프턴, 13일 울버햄프턴과 정규리그 경기를 앞두고 있다.

/연합뉴스

### LOTTE CINEMA | 총장로관

### 광주문화예술회관 문의 062)613-8353

즐거움  
문화  
산책



- 단체 및 대관문의 1544-8855
- 1관 해작: 도깨비 깃발
  - 2관 해작: 도깨비 깃발, 극장판 안녕 자두야: 제주도의 비밀
  - 3관 김메이커, 스파이더맨: 노 웨이 홈
  - 4관 김메이커
  - 5관 김메이커
  - 6관 해작: 도깨비 깃발
  - 9관 해작: 도깨비 깃발
  - 7관 씨네케틀 해작: 도깨비 깃발, 씨2게더, 스파이더맨: 노 웨이 홈, 극장판 안녕 자두야: 제주도의 비밀
  - 8관 씨네케틀 스파이더맨: 노 웨이 홈, 특송, 경관의 피



GAC기획공연 포커스  
프렌즈 클래식 사파리  
일시 : 2022.03.03.(목)-04.(금)  
장소 :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  
문의 : 062-613-8233



광주시립교향악단 제361회 정기연주회  
타임머신  
일시 : 2022.02.18.(금)-19.(토)  
장소 :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  
문의 : 062-524-5086

